

데스크 시각

소유진의 ‘아름다운 낭독’



김 미 은
문화1부장

혹시 개그맨 이동우를 아시는지. 홍콩 기 등과 함께 ‘틴틴 파이브’로 활동했던 연예인이다. 이 씨는 2004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슈퍼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철인 3종 경기 완주, 솔로 재즈 앨범 제작, 연극 출연,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연극 ‘내 맘의 슈퍼맨’을 무대에 올리며 ‘완성’됐다.

출판 잡지 ‘기획화’를 읽다 탤런트이자 EBS 라디오 ‘화제의 베스트 셀러’ 진행자인 소유진의 인터뷰를 보며 코끝이 찡했다. 이동우와 얽힌 사연이다.

그녀는 이 씨가 쓴 책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시력이 나빠져서 속상하다”는 대목을 읽었다. “마흔이 넘어 굳어버린 손 때문에 접자를 배우기 어렵고 읽고 싶은 책은 오디오나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는 부분도 있었다.

그녀는 이 씨에게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중학생 때 읽었던 이해인 수녀의 ‘두레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며칠 후 ‘두레박’을 다 읽어 6시간 짜리 CD로 녹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해줬다.

이 씨는 너무 행복해 하며 CD를 다른 장애인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알뜰살뜰으로 이해인 수녀와 연락이 닿았고, 사연을 들은 수녀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다 가져가라고, 다른 책도 줄테니 다 읽고 녹음해 달라고 했다한다.

빈 박스를 차에 실은 이유

아는 부부와 차를 타고 가다 색다른 경험을 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자 그들은 갑자기 차를 세웠다. 부라부라 차에서 내린 부부는 차 트렁크를 열고 빈 박스를 꺼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어주었다. 집에서 수거한 박스를 챙겨 두었다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만나면 전해준다고 설명했다.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는 수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리어카를 끌고 사라졌다. “대단하다” 말했더니, 부부는 우리 애겐 별 쓸모없지만 할머니에게 정말 소

중하게 쓰이니 그게 더 감사하다고 했다.

어제 인터뷰한 임혜절 씨의 사연<광주일보 21일자 2면>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두번째 삶을 살게 된 임 씨는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바라며 가곡 CD를 냈다. 한때 예기치 않게도 음반을 받아든 이들에게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전화가 왔다. 일부러 계좌번호를 묻는 이들도 많았다. 1만 원부터 십사일만 정성을 모으는 중이다.

애잔한 마음만 갖고 넘어갈 수 있겠만 일일이 책을 읽고 녹음해 선물한 소유진,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한 이동우, 저작물을 흔쾌히 내어준 이해인 수녀. 거리의 노인들을 생각하며 빈 박스를 모으는 부부, 자신의 재능으로 고마움을 전한 임혜절, 거기에 정성을 더한 평범한 사람들.

누군가를 배려하는 속궁은 작은 마음들이 모여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세가지 일을 접하며 부끄러웠고,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다.

광주시 캐치프레이즈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다. 시민은 동가 출신 시장이 입성하면서 ‘광주 정신’도 많이 언급된다. 두 가지 모두 공동체를 위한 삶,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지향해야할 가치

관으로 더 없이 훌륭하다.

한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언급되는 광주 정신에는 좀 피로감을 느낀다. 광주 정신이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양 독점하려는 사람들, 광주 정신을 언급하며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 광주 정신을 만병통치약처럼 활용하려는 사람들, 실천 없이 그냥 ‘임박웃’처럼 외치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광주 정신’을 이용하는 자

그런 점에서 목록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광주 정신의 실행자들이다.

며칠 전 예술의 거리에서 러시아 랍파극장의 ‘사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착한 일을 해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한참 공리를 하는 대목에서 할머니가 이런 대사를 한다. “천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왼쪽 어깨에는 나쁜 일을, 오른쪽 어깨에는 착한 일을 적어 내려간다. 영감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왼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속이 좀 뜨겁했다. 집에 돌아와 내 모습을 거울에도 한번 비춰봤다. 당신도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라.

/mekim@kwangju.co.kr

社 說

이 총리 사의, 박 정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거듭된 말 바꾸기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했던 이 총리가 여야는 물론 여론의 사퇴 압박이 가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의 순방 중에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총리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직 국무총리가 3000만 원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거짓말을 하다 사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이 총리는 두 달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에 외압을 가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박 정부에서만 2명의 총리가 사퇴하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수난사를 겪게 된 것이다.

성완종 파문이 갈 길 바쁜 국정외 발목까지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 중

남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까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편 표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및 자원외교 비리 조사 지연, 4·29 재보선 등이 맞물리면 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국정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일단 수사 대상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면 만큼 엄정한 수사로 한 정의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난국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기 의식을 갖고 정치권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이 총리의 사퇴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이를 국정 안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이 성공하려면

광주비엔날레가 현대미술 발전지, 지역작가 육성 및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제1의 도약에 나섰다. 이를 통해 비엔날레 대학, 청소년 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관을 발판삼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20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내놓은 발표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시각문화 선도처로서 국제적 위상 정립과 차별성 강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단 경영기반 구축 ▲지역 및 대외 네트워크 활성화로 소통 협력체계 강화 ▲문화진흥 발전지 역할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년간 축적된 광주 비엔날레의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각종 행사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아카이브관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관은 비엔날레 행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방문객들이 비엔날레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역작가 육성과 소통이다. 그동안 광주의 제1 문화 브랜드임에도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지역과의 불통이었다. 글로벌 가치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작가 육성과 학생·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데에는 무관심했던 탓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비엔날레 대학, 청소년 비엔날레가 운영된다면 이 같은 지역사회의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단의 발전 방안은 광주비엔날레 조직과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향을 담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관건은 재단의 실전 의지다.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등 환골탈태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무늬만 개혁’으로 끝났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껍어야 보배다. 재단은 이제 실천을 통해 세계 5대 비엔날레의 명성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다시 융두사미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은편칼럼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의료보험이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여러 사람이 보험금을 미리 모아서 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중 한개변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유신 정권 시절인 1978년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조합을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11월 전국의료보험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78년부터 직장인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80년대 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가입은 출생신고를 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방식은 다른 여타의 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직접 받지 않고 병원과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의료 기관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급방식 때문에 보험금이 각각의 병원으로 지급되기전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심사 평가 한다. 과거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심사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심사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어 심사를 하고 있다. 과거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할 때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지금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착감 등의 문제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평원과 병원은 ‘갑’과‘을’ 관계이다.

자동차 보험은 1963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가 그 시작이다. 국가가 관리 하던 자동차 보험을 박정희 정권 때 민간으로 넘겼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진료비도 과거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심사했으나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다. 14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에서 각각 해오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설립해 이전하였 다. 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 가짜 환자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불투명한 심사기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사고 후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기위한 별

도의 계약이므로 최소의 보장(?)이 목적인 의료보험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자의 의료기관의 이용을 심사하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강행하였 다. 자동차보험사들은 비용을 줄였고 심평원은 연간 100억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중립적인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다. 아직은 보험가입자, 병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많다. 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받는 직불제 도입, 고가의 특수검사 시행 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심의제 도입, 비급여 진료 허용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실손보험은 2005년 삼성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제도화 이후, 현재까지 약 3000만 명 이상 가입되어 있다. 실손보험은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60%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공여지책인데 이 실손보험의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처럼 보험금이 개인이 아닌 병원으로 지급되게 된다.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되면 각각의 의료기관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 ‘갑’ 과 ‘을’ 관계에서 ‘을’에게 또 다른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국가가 의무가입을 강제하

는 공적보험으로 보험료, 의료수가, 급여수준을 국가가 통제 관리 한다. 반면 실손보험은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보험가입으로 보험료, 급여수준을 보험사와의 사적 계약으로 결정한다. 즉 모든 보험이 동일한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병원 이용 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사 마다 다르다. 보험의 목적도 다르다. 최소한의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의료보험이 해결해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치료가 목적이다.

이처럼 목적과 방법이 다른 보험을 통합해 심사하는 것은 심평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를 독점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한 보험사기 등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과의 관계에서 ‘을’인 병원의 몫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영상태가 어려운 동네 병원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경영 합리화로 재정을 확보하고 여러 방법을 마련해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의료보험의 부실함을 보충하고 있는 실손보험까지 심사하려는 것은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대충 때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 사려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기 고

분단 70년, 아직도 생소한 호국영웅들



안 주 히
국가보훈처 목포보훈지청 실무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민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생소한 광주·전남출신 호국영웅(護國英雄)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무안출신으로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고육만호 공군대장은 6·25전쟁 때 100회나 출격한 조종사로, 세계 공군사에도 기록될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당시 미국 공군은 북한의 핵심 병장전(주보급로)인 평안남도 승호리 철교를 없애기 위해 수차례 출격했지만, 번번이 대공 포화공격에 막혀 전파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결국 승호리 철교 폭파는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패배의식과 함께 아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전세도 불리한 상황에서 치달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육 대장은 제2편대장으로 승호리 철교작전을 맡게 됐고, 목숨을 건 공격 끝에 북한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등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육 대장은 전역 후에도 고향과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지난 1998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 고향인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호담 항공우주전시관을 설립하고,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와 공군의 역할, 임무 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실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던 전투기를 전시하는 등 전시관 곳곳에는 나라사랑을 후세에 전하려는 애국심도 묻어 난다.

또 광주·전남에는 6·25전쟁 동안 강일도 백합산 894고지 탈환 작전에서 진두지휘해 고지를 탈환하고 평양탈환 작전 참가 등 수많은 전공을 세운 김조규 중위를 비롯한 고지와 능선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9500여명이 희생된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에서 백병전 끝에 정렬하게 전사하신 조영국 중령 소위 등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과 공적은 사실상 역사속 공적 서류 한장에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이 후손들의 기억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에만 6·25전쟁과 관련해 국가에서 인정한 호국영웅만 19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이름과 활약을 아는 지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역인 선조들이 위기에 빠진 국가를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희생하였는지, 그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도로와 교량, 공원,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프랑스 드골 공항, 영국 트라팔가 해전상 등과 같이 실명을 넣거나 미국 캔자스대 명비 등 대학건물에 참전자 명비 설치, 지역별 참전비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목포보훈지청에서는 올해 국민 애국심 함양 등을 목표로 ‘광주·전남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각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광주·전남 출신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는 추모 시설 설치, 공원 및 도로 등 호국영웅 명칭 부여, 묘교 내 영웅 명비 설치, 기념조형물 건립, 기념강연 및 기념식 개최, 공공기관 청사 회의실과 군부대 시설 등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 및 조형물 설치 등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관련 정책과 홍보 등을 강화한다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아닐까 한다.

지역민의 관심이 없다면 광주·전남의 자랑스러운 호국영웅들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70년, 봄꽃이 가득한 2015년 4월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을 봄이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소풍가는 마음으로 가까운 현충탑 등 현충시설을 한번 찾아 보시라고. 무겁거나 엄숙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최소한 오늘의 대한민국과 내고향이 건재하도록 희생하신 호국영웅 중 ‘이웃 어르신’만큼은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無 等 鼓

비타민 음료수 하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숭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음료수 ‘비타500’ 박스에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넣어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음료수를 만든 제약사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가하면, 인터넷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각종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들이 잠시나마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는 음료수, 그 음료수 박

노물의 역사

역사를 살펴보면 뇌물로 사용된 때 개체는 매우 다양하다. 조선 중종 때 권력자 김안로는 개고기를 무척 즐겨 먹었고, 맛있는 개고기를 바친 사람에게 벼슬까지 주었다고 전해진다. 세종 때 관리 지도원은 서류를 조작해 선량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고, 이들을 우의정과 병조판서 등에게 바쳤다. 속종 때는 권력자에게 주로 담배와 쌀을 건넸다.

금은 뇌물로 단연 인기 최고였다. 일제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김갑순은 순금으로 명함을 만들어 권력 뇌물은 고대로부터 정치와 뿔 수 없는 관계였다. 뇌물은 현금이 주를 이루지만 물품, 사람, 성 상납 등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였던 자 뇌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따르면 뇌물에 관한 기록은 기원 전 15세기 이집트시대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 세조 때 대형 뇌물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을 제외한 6부 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김갑순은 순금으로 명함을 만들어 권력 뇌물은 고대로부터 정치와 뿔 수 없는 관계였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주식회사가 보편화되면서 주식이 뇌물로 등장했다.

지난해 터진 고위층 성접대 사건에서 보듯 ‘성(性)’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이용되는 품목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관공서에서 서류라도 때려면 담배라도 한 갑 찢러 줬아 했고, 빠른 업무를 위해서는 관행료라고 해 1만 원 정도를 건넬던 관행도 있었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지 않듯 뇌물 근절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다.

/최희송 사회탐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통권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사업국 2200-54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경고매팅국 227-9600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광동개발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